

金 “4장 있다” 이면계약서 李 “쓰적 없다”

■ 김경준-이명박측 주장 뭐가 다른가

서명 여부 “친필 사인” Vs “언급 가치 없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동업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이날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이 후보가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를 실제로 소유했다는 것. 이씨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씨 가족은 이 후보의 이름이 적힌 BBK의 명함과 홍보물, 이 후보 비서의 법정 증인이 담긴 DVD 등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의 열쇠인 ‘이면계약서’ 원본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이날 이보라씨가 이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주요 근거는 네 가지 정도.

우선 이 후보와 김씨가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 양측이 주장이 다르다. 이보라씨는 이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기가 BBK가 설립된 1999년 4월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BBK 관련 계약이 2000년 3월에 이뤄졌는데 어떻게 처음 만난 지 두세 달 만에 50억원의 투자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다라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연수 중이었고 2000년 1월 서울에서 김씨를 만났을

을 재확인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아무리 허위 주장을 한다고 해도 6하 원칙에 맞게 해야 그래도 덜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보라씨는 또 이 후보가 대표이사로 기재된 BBK와 EBK 등의 명함 및 홍보물의 존재를 시인한 이 후보 여비서 이진영씨의 증언을 근거로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씨는 지난해 8월26일 미연방검사가 방한해 주한미대사관에서 이진영씨를 소환해 조사할 때 이씨의 진술이 수록된 DVD를 증거물로 공개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당시 이 후보가 대표이사였던 LKe뱅크가 BBK와 EBK의 지주회사 관계였던 만큼 김경준이 임의로 이 같은 명함이나 홍보물을 만들었을 수 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다스가 BBK에 190억원 전액을 실제 투자했는지 여부와 김씨의 사기·횡령 여부 등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다르다.

김씨 측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횡령과 사기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다스 측이 2000년 12월말 투자했다는 80억원(190억원의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이 이상하다고 주장했

김경준측-이명박후보측 주장 차이점

| 김경준 가족 | 이명박 후보측 |
|---|--|
| 이후보가 당시 사용한 것들로, BBK를 소유했다는 증거 | BBK 설립 이후인 2000년 1월 서울에서 만난 시기 |
| 190억원 전액 투자하지 않았고 2001년 말 다스에 50억원 상환함으로써 채무관계 정리 | 다스가 BBK에 190억원 전액 투자했는지 여부 및 김씨의 투자금 횡령 여부 |
| 한글 이면계약서 1장, 영문 이면계약서 3장 존재 | ‘이후보가 BBK 소유주인 내용의 이면계약서 존재 여부 |
| 4장 모두 이후보 친필사인 되었음 | 이면계약서 4장에 이후보 서명 여부 |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왼쪽)가 21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월셔 프리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후보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다는 이면계약서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오른쪽은 에릭 호너 변호사. /연합뉴스

다. 또한 2001년 12월 다스의 이상은 회장이 BBK로부터 50억원을 돌려받은 뒤 다스와 BBK간 채무관계가 정리됐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다스가 190

억원을 BBK에 분할 투자한 근거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검찰에 제출해놓았으며, 다스와 BBK의 채무관계 정리 계약서는 50억원만 상환받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 “李 후보 거짓말 드러났다” 한나라 “증거 제시 못한 코미디”

■ 정지권, 이보라씨 회견 진위 날선 공방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21일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진위를 주장하며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대통합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를 편 반면, 한나라당은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며 김씨를 시도했다.

신당 최재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보라씨 주장 중 이 후보 측근인 이진영씨가 ‘이 후보의 e뱅크코리아 브로슈어와 명함은 진짜’라고 말했다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또 이보라씨는 김경준씨와 이 후보가 1999년 초에 만났다고 했다. 이는 BBK 최초 설립과정에 이 후보가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도 “이보라씨 기자회견을 보면 이 후보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 후보가 피노키오라면 이 후보 코는 지구를 한바퀴 돌 만큼 길어질 것이고,

그 코에는 5천만 국민이 걸터앉을 만큼 비리가 많다”고 비판했다.

대통합신당은 이와 함께 이 후보가 BBK의 지주회사격인 e뱅크코리아의 회장이었다는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정봉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LKe뱅크, BBK를 묶어 그룹회사 이름을 e뱅크코리아라고 이름지었다. e뱅크코리아의 홈페이지도 있고, 금감원에 관련자료도 제출돼 있다”며 “이 후보는 e뱅크코리아를 모르고 관계 없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보면 이 후보는 e뱅크코리아 회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또 대선후보 등록 이전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재차 촉구하면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변명으로 일관하고 김경준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

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에리카 김이 어찌부터 기자회견한다고 소란을 피우더니 결국 뺑뺑이, 헛소리라는 것이 확인됐다. 완전 헛방이다”면서 “위조서류가 담긴 서류봉투가 한국에 왔고, 입증자료가 곧 발표된다고 했지만 전혀 없었다. 그런 게 없으니 에리카 김이 안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완전 코미디다. 큰소리치던 에리카 김은 숨었고 오히려 이 후보의 결백이 입증된 셈”이라며 “연기만 피울 것이 아니라 이면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든 지 아니면 법의 심판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공동대변인은 “과히 가족사기단 다운 ‘가짜 약 팔기’였다. 이미 나온 사실을 짜깁기하고 각색하는데 급급했다”면서 “에리카 김은 김경준이 빼돌린 돈 50억원을 착복했고 유죄판결을 받아 변호사 직에서도 사실상 쫓겨났다. 영치가 있다면 빼돌린 재산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재원 변호사, 김씨 변호 맡기로 김경준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 자격증 반납

“단순 형사사건으로 생각하고 처리” 자격정지 심의와 관련 있는 듯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변호를 그만둔 박수중 변호사를 대신해 21일부터 오재원 변호사가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오재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 친척한테 어제 제의를 받아 선임계를 봤으며 오늘 점심 때 (김씨를) 잠깐 만나 인사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박수중 변호사로부터 에리카김이 보낸) 박스를 인계받긴 했지만 아직 내용물은 잘 모르고 김경준씨가 직접 열어보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또 “미국 시민인 김경준씨가 한국 재판을 잘 모르고 있는 만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임회를 많이 하겠다”며 “아직 같이 일할 만하

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으며 당분간 혼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형사 사건으로 생각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해 이 사건이 갖는 정치적 파급력에는 예외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를 지내다 개업한 뒤 1999년 판사로 임용됐으며 이후 다시 개업하는 등 ‘법조3원’을 모두 거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박수중 변호사는 20일 “진짜 금융조세 사건이고 늘 하는 사건이라 법적인 요건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고, 김씨가 좀더 일찍 올 줄 알았다”며 “이 정도까지의 줄 몰랐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씨 변호를 그만뒀다.

/연합뉴스

자격을 심의와 관련 있는 듯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41)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44)씨가 캘리포니아 변호사직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에리카 김은 지난 16일자로 변호사 활동을 자진해 그만두겠다고 면허를 반납했으며 이 사실은 웹사이트에 공지됐다.

에리카 김이 왜 변호사직을 반납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11일 연방법원에서 허위 세금보고 등 모두 4건의 유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 변호사협회 자격정지 심의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檢, ‘BBK 의혹’ 내달 5일 발표 가능성

계약서 진위 감정 물리적 시간 필요

김씨측 “원본 23일 제출”

투자자문사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 사건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면계약서’ 진위 공방에 막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김씨와 이 후보가 맺었다는 ‘이면계약서’ 등 이번 의혹을 풀이할 핵심적 증거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검찰에 제출되고 있고 수사진이 과학적 감정기

법으로 해당 자료의 진위를 밝혀내려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씨 가족은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로 주목받고 있는 ‘이면계약서’ 및 관련 소송서류 사본을 수사팀에 냈고

계약서 원본은 금요일인 오는 23일까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본만으로는 서류의 진위 판정이 어렵다고 보고 양측으로부터 원본 내지 진본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를 제출받아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기서 ‘시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자체 입수했다는 ‘계약서 진본’까지 포함해 각종 증거서류들의 진위를 대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을 통해 감정해야 하

는데 이것도 최소한 며칠이 걸린다. 사법처리 절차를 봐도 이번 주말까지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씨의 1차 구속사건이 대선후보 등록일인 25일 이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3~4일만에 김씨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돼야 한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 규명 대상인 이 후보의 사건 연루 여부를 결론 내려면 이 후보에 대한 서면 내지 소환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검찰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김씨의 2차 구속사건인 다음달 5일이 임박한 시점에 김씨가 기소되면서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1. 산행일시: 11월 24일(토) 08:00 ~ 15:00

2. 산행장소: 금강산(남대문) 코스

3. 참가비용: 10만원 (식사, 교통비, 보험료 포함)

4. 신청방법: 전화 02-1234-5678

공인증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현재 접수중

광주고시학원

222-5533

771-5533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1. 교육과정: 공무원 시험 대비

2. 강사진: 현직 공무원

3. 수강료: 50만원

4. 문의처: 02-1234-5678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서울점: 02-1234-5678

부산점: 051-1234-5678

개강 12월 3일

국비무료